

## 미 증시, 출렁임은 있었으나 경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상승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중국 경제 봉쇄 완화 기대와 주요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상승 출발. 물론 일부 차익 매물로 상승분이 축소되기도 했으나, 연준 위원들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 등으로 재차 상승 확대. 한편, 오후에 파월 연준 의장이 더욱 공격적인 금리인상 기조를 시사하자 출렁임은 있었으나, 여전한 경기에 대한 자신감과 일부 개별 기업들의 호재성 재료와 과매도 기대에 기반해 재차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견고한 모습(다우 +1.34%, 나스닥 +2.76%, S&P500 +2.02%, 러셀2000 +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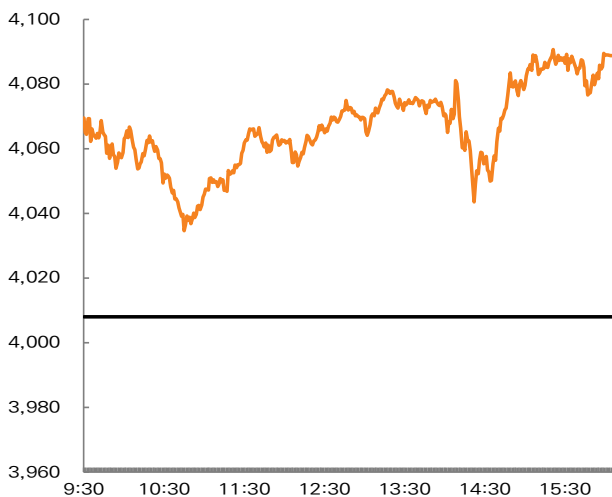
### 특이 종목

- 씨티그룹(+7.56%)은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1.72%)가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등. 금융주도 동반 상승, 파라마운트 글로벌(+15.35%)도 매입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등. 반도체 산업에 부정적인 전망을 하던 파이프샌들러의 Harsh Kumar도 최근 하락이 급격하게 진행되자 매수 기회를 제공했다고 발표. 특히 퀄컴(+4.32%), AMD(+8.73%), 온 세미콘덕터(+6.07%)를 추천하자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으며 엔비디아(+5.29%), 마이크론(+5.69%) 등도 동반 상승

###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2.63%, MSCI 신흥 지수 ETF는 2.45%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67.07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9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68% 상승. KOSPI는 1% 내외 상승 출발 예상
- 미 증시가 일부 기업들의 호재성 재료 유입과 미국 실물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경기 침체 이슈가 완화되며 강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 우호적. 특히 반도체 업종이 과도한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 기회라는 애널리스트 분석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02% 상승한 점은 관련 종목군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
- 더 나아가 워렌버핏의 적극적인 개별 주식 매입 소식 등도 과매도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는 점에서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물론 파월 연준의장의 좀 더 매파적인 발언 등을 감안시 매물 출회 욕구 또한 높아 한국 증시는 1% 내외 상승 출발 후 호재성 재료가 유입된 종목 위주로 강세를 보이는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620.44	+0.92	상해종합	3,093.70	+0.65
KOSDAQ	865.98	+1.14	홍콩항셱	20,602.52	+3.27
DOW	32,654.59	+1.34	베트남	1,228.37	+4.81
NASDAQ	11,984.52	+2.76	유로스톡스 50	3,741.51	+1.52
S&P 500	4,088.85	+2.02	영국	7,518.35	+0.72
캐나다	20,491.01	+1.41	독일	14,185.94	+1.59
일본	26,659.75	+0.42	프랑스	6,430.19	+1.3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 ①경기 침체 우려 완화 ②파월의 발언

미국 4월 소매판매는 지난달 발표된 수치(mom +1.4%)를 하회했지만 예상(mom +0.8%)을 상회한 전월 대비 0.9% 증가로 발표. 미국 4월 산업생산은 지난달 발표(mom +0.9%)나 예상(mom +0.4%)을 상회한 전월 대비 1.1% 증가했고 공장 가동률도 지난달 발표(78.2%)를 상회한 79.0%를 기록. 이러한 실물 경제지표가 견고함을 보이자 애틀랜타 연은이 발표하는 2분기 GDP 성장률 전망은 2.5%로 상향 조정되는 등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

한편, 소매판매에서 자동차 판매가 1.6% 둔화에서 2.2% 증가로 전환했고, 산업생산에서도 자동차 및 부품 업종이 지난달 8.4% 증가에 이어 3.9% 증가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 수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경향을 보여 공급망 불안이 완화된 것으로 추정. 뉴욕 연은이 발표하는 공급망 압력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공급망 불안 심리가 완화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돼 투자심리에 긍정적

더불어 최근 75bp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던 볼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다음 회의에서 50bp 인상은 좋은 계획이다” 라며 시장의 우려를 완화시켰으며, 이연 수요 증가와 타이트한 고용시장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도 유럽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는 등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

이렇듯 구체적인 경제지표나 연준위원들의 발언은 결국 최근 하락 요인 중 하나였던 ‘경기 침체’ 이슈를 완화 시켰으며, 이 영향으로 달러화는 약세를, 국제 금리와 주식시장은 상승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이런 가운데 오후 들어 파월 연준 의장은 향후 2번의 FOMC 회의에서 50bp의 금리인상을 지지한다고 주장했으나 과거보다 좀 더 매파적인 발언을 했음. “물가가 하락하기 전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 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필요하면 중립 금리 위로 인상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 고 주장

더불어 경제는 강하고 긴축을 견딜 수 있지만 중국의 봉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지난해처럼 높은 수준의 성장에서 하락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시사. 특히 연착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도전적이라고 언급했으며 세계화가 어느정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향후 경제 블록의 확대 가능성이 부각

이러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잠시 주식시장이 출렁거림은 있었으나 여러 경제지표 개선과 워렌버핏의 개별 종목 매수 지속,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해오던 애널리스트가 과매도를 언급하며 관련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저가 매수 심리를 자극한 소식도 시장 상승 요인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금융, 반도체, 낙폭 과대 종목 강세

씨티그룹(+7.56%)은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1.72%)가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등. 주요경제지표 개선 등에 힘입어 국제 금리가 상승한 점도 긍정적. JP모건(+3.31%), BOA(+3.39%) 등 대형 금융주는 물론 키코프(+3.72%), 피프티서드 방코프(+4.17%) 등 지역 은행 등도 동반 상승. 파라마운트 글로벌(+15.35%)도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 매입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등. 이에 힘입어 워너브라더스 디스크버리(+6.68%), DISH(+4.93%) 도 동반 상승

반도체 산업에 부정적인 전망을 하던 파이퍼센들러의 Harsh Kumar도 최근 하락이 급격하게 진행되자 매수 기회를 제공했다고 발표. 특히 퀄컴(+4.32%), AMD(+8.73%), 온 세미콘덕터(+6.07%)를 추천하자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으며 엔비디아(+5.29%), 마이크론(+5.69%) 등 여타 반도체 종목도 동반 상승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02% 급등

반도체 업종에 대한 소식은 최근 큰 폭의 하락을 보여 왔던 애플(+2.54%), 아마존(+4.11%), 테슬라(+5.14%) 등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켜 관련주 강세가 뚜렷. 특히 소매판매와 산업생산을 통해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긍정적 소식이 전해진 점도 테슬라의 상승 확대 요인. GM(+2.70%), 포드(+3.68%) 등도 강세. 반면, 월마트(-11.38%)는 비용 증가로 예상을 하회한 실적 발표하자 급락. 이 여파로 코스트코(-0.82%), 타겟(-1.41%), 달러제너럴(-2.83%) 등 소매 유통 업종이 부진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2.91	대형 가치주 ETF (IVE)	+1.61
에너지섹터 ETF (OIH)	+1.77	중형 가치주 ETF (IWS)	+2.32
소매업체 ETF (XLY)	+2.52	소형 가치주 ETF (IWN)	+2.95
온라인소매 ETF (EBIZ)	+3.50	대형 성장주 ETF (VUG)	+2.39
금융섹터 ETF (XLF)	+2.82	중형 성장주 ETF (IWP)	+2.23
기술섹터 ETF (XLK)	+2.90	소형 성장주 ETF (IWO)	+3.32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2.82	배당주 ETF (DVY)	+1.97
클라우드 ETF (CLOU)	+1.11	신흥국 고배당 ETF (DEM)	+1.55
미국 리츠 ETF (VNQ)	+1.36	신흥국 저변동성 ETF (EEMV)	+1.33
주택건설업체 ETF (XHB)	+2.69	미국 국제 ETF (IEF)	-0.76
바이오섹터 ETF (IBB)	+2.85	하이일드 ETF (JNK)	-0.08
헬스케어 ETF (XLV)	+1.37	물가연동채 ETF (TIP)	-0.51
곡물 ETF (DBA)	+0.53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57
반도체 ETF (SMH)	+4.78	모멘텀 ETF (MTUM)	+2.42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IT	2,422.23	+2.91	+0.85	-5.93
소재	531.63	+2.86	+4.08	-4.94
금융	566.84	+2.69	+1.53	-7.59
경기소비재	1,193.30	+2.68	+1.70	-15.14
산업재	802.83	+2.28	+2.55	-5.04
통신	202.25	+1.82	+2.72	-9.63
헬스케어	1,528.58	+1.38	+3.44	-5.40
에너지	635.50	+1.14	+8.88	+4.59
부동산	270.18	+1.05	+3.39	-11.44
유틸리티	366.41	+1.02	+2.06	-5.19
필수소비재	796.36	-1.15	+0.30	-3.41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상승 출발 후 종목 장세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2.63%, MSCI 신흥 지수 ETF는 2.45%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267.07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9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68% 상승. KOSPI는 1% 내외 상승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전일 미 증시 하락 불구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상승. 특히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 및 테슬라의 2차 전지 수요 증가 기대감이 확대되며 관련 종목군의 강세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을 견인. 더불어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에 따른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된 점도 대형주 강세를 견인하며 KOSPI는 0.92%, KOSDAQ은 1.14% 상승 마감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일부 기업들의 호재성 재료 유입과 미국 실물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경기 침체 이슈가 완화되며 강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 우호적. 특히 반도체 업종이 과도한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 기회라는 애널리스트 분석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02% 상승한 점은 관련 종목군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

더 나아가 워렌버핏의 적극적인 개별 주식 매입 소식 등도 과매도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는 점에서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물론 오늘 저녁에 있을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인상을 시사하는지 여부, 파월 연준의장의 좀 더 매파적인 발언 등을 감안시 매물 출회 욕구 또한 높아 한국 증시는 1% 내외 상승 출발 후 호재성 재료가 유입된 종목 위주로 강세를 보이는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 견고한 미국의 실물 경제지표

미국 4월 소매판매가 지난달 발표(mom +1.4%) 보다 둔화된 전월 대비 0.9% 증가했으나 예상(mom +0.8%) 보다는 견고 했으며, 자동차와 가솔린을 제외한 수치도 지난달 발표된 1.2% 증가 보다 둔화된 1.0%로 발표되었으나 이 또한 예상(mom +0.6%)을 상회. 특히 자동차 판매가 지난 달 1.6% 둔화에서 2.2% 상승으로 전환해 공급망 불안이 완화된 것으로 추정

미국 4월 산업생산은 지난달 발표(mom +0.9%)나 예상(mom +0.4%)을 상회한 전월 대비 1.1% 증가 했으며 제조업 생산량도 예상치인 0.3%를 상회한 전월 대비 0.8% 증가로 발표. 공장 가동률은 지난달 발표(78.2%)나 예상(78.6%)을 상회한 79.0%를 기록

애틀란타 연은이 발표하는 GDPNow의 2분기 GDP 성장률 전망은 지난 9일 발표된 1.8%에서 2.5%로 상향 조정



## 실물경제지표 발표 후 위험자산 선호 심리 확산

국제유가는 EU의 대 러시아 원유 금수조치 합의 불발 소식에 하락. 대부분의 국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찬성했으나, 러시아산 석유 의존도가 높은 동구권 중심의 국가들이 이를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 여기에 바이든 미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 시킬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베네수엘라 원유 유입 증가 기대도 국제유가 하락 요인.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점, 드라이빙 시즌으로 인한 수요 증가 기대가 높아져 하락은 제한

달러화는 주요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 특히 유로화의 강세가 뚜렷한 점도 달러 약세 요인. 유로화는 ECB 통화정책을 앞두고 일부 위원이 7월 25bp 금리인상이 현실적이며 50bp 인상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자 달러 대비 강세. 더불어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유로존 경기에 대한 기대도 유로화 강세 요인. 한편, 역외 위안화가 달러 대비 0.00% 강세를 보이는 등 신흥국 환율도 달러 대비 강세폭이 확대

국제금리는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상승. 특히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며 금리가 최근 하락하기도 했던 점을 감안 미국의 실물 경제지표가 견고함을 보이며 경기 침체 이슈를 완화 시켜 금리 상승을 견인. 여기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중립금리 이상도 가능하다고 언급하는 등 생각보다 매파적인 발언을 한 점도 상승 요인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 약화에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로 상승.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했으나 니켈은 하락 지속. 곡물은 옥수수 파종률이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에 하락. 더불어 러시아 비료 생산업체들이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행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도 하락 요인. 반면, 밀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가 협상은 없다고 주장한 여파로 상승 지속. 대두는 주요 파종지에 폭풍우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96%, 철근은 0.90% 하락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112.40	-1.86	+12.35	Dollar Index	103.338	-0.81	-0.56
브렌트유	111.93	-2.50	+8.71	EUR/USD	1.0543	+1.04	+0.13
천연가스	8.30	+4.06	+12.11	USD/JPY	129.37	-0.16	+0.83
금	1,818.90	-0.02	-1.49	GBP/USD	1.2481	+1.32	+1.34
은	21.75	+0.32	+0.91	USD/CHF	0.9941	+0.82	+0.18
알루미늄	2,890.50	+2.07	+4.98	AUD/USD	0.7019	+0.69	+1.17
전기동	9,366.00	+1.38	+1.49	USD/CAD	1.2822	+0.19	+1.60
아연	3,661.50	+2.75	+1.78	USD/RUB	65.5000	-1.77	+7.26
옥수수	800.75	-0.96	+3.42	USD/BRL	4.9436	+2.37	+3.85
밀	1,277.50	+2.59	+17.11	USD/CNH	6.7424	+0.82	+0.08
대두	1,678.00	+1.33	+5.42	USD/KRW	1,275.00	+0.71	+0.11
커피	227.20	+1.07	+11.48	USD/KRW NDF1M	1,267.07	+1.09	+0.78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988	+10.56	-0.30	스페인	87.438	+11.80	+1.34
한국	3.280	+1.30	-13.00	포르투갈	95.368	+11.45	+1.95
일본	0.246	-0.10	-0.10	그리스	84.918	+3.92	+6.49
독일	1.046	+10.90	+4.60	이탈리아	82.839	+11.83	-4.02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